

#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 研究\*

김진옥\*\*

## <차 례>

1. 序論
2.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 一般的 特性
  - 2-1. 題詠 空間에 나타난 景의 不在
  - 2-2. 連作과 次韻의 問題
3. 題詠 空間의 이미지
  - 3-1. 人物 懷古의 空間
  - 3-2. 遊戲의 空間
4. 結論

## <국문초록>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연구 목적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찰 제영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러한 작업이 사찰 제영시가 우리 한시의 하위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서이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아직 한국 사찰 제영시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사찰 제영시가 가지는 특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비록 오류를 가지더라도, 결국 한국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하였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361-AM0015) 또 한국고시기문학회 제25회 전국학술대회(2012.8.24.)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힘.

\*\* 순천대학교 HK연구교수.

사찰 제영시의 기저가 되는 불교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지리산권 불교문화가 한국 불교문화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기에, 지리산권은 불교문화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이면서, 중앙적 성격을 나아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는 일반적으로 제영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景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 제영시의 일반적 형식인 연작시와 차운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제영 공간이 인물에 대한 회고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유희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은 제영시의 일반적 성격과 무척 상이하고 사찰 제영시의 특성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논문의 성격상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를 상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핵심어 :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지리산권 불교문화, 제영 공간, 경의 부재, 연작시, 차운시

## 1. 序論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찰 제영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러한 작업이 사찰 제영시가 우리 한시의 하위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서이다. 다른 하나는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지리산권 문화 연구의 큰 축의 하나인 지리산권 불교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그 대상을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로 한정하고자 한다. 아직 학계에서 사찰 제영시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sup>1)</sup>에서 논의의 대상을 한국 사찰 제영시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작업의 방대함이 주는 여러 문제들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성격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자락에는 수없이 많은 사찰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으며, 지금도 많은 사찰이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찰에 수많은 제영시가 전해오고 있다.<sup>2)</sup> 그러므로 비록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로 논의의 폭을 줄였음에도 대상 작품 수는 대단히 많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연구에 대한 선행 작업인 金晋郁의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sup>3)</sup>와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sup>4)</sup>를 주자료로 사용하고

- 
- 1) 학계에서 사찰 제영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갑기는 “한시 연구 영역으로서의 제영시 연구는 미처 괄목할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 사찰 제영시란 사찰 연기설화나 기, 혹은 상량문 등 산문에 비하여 낯설기만 해서 학문적 관심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 2007, 56쪽.) 현재까지 논의된 사찰 제영시 내지 한시와 사찰과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강석근, 「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 2007,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35집』, 2006.  
 김석태,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시가연구 23집』, 2009.  
 김석태, 「호남의 사찰 제영시」, 『호남문화연구 41집』, 2007.  
 金晋郁,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투영된 불교 공간 인식 연구」, 『인문과학논총 31권』, 2012.  
 金晋郁,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김혜숙, 「지리산의 한시적 반향」, 『한국한시연구 7집』, 2000.  
 민병수, 「한국 한시와 사찰」, 『한국한시연구 4집』, 1996.  
 박수천, 「智異山の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집』, 2000.  
 이종묵,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임종욱, 「사찰제영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5집』, 2000.
- 2) 박수천은 「智異山の 寺刹 題詠 漢詩」라는 논문을 통하여 지리산의 사찰 제영 한시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지리산의 사찰 제영시가 워낙 많은 까닭에 충실하게 살필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김진옥 역시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라는 책자를 내면서도 동일한 언급을 하였다.

자 한다.

사찰 제영시는 한국 한시문학에서 제영시의 하위 장르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상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역시 제영시의 일반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과 다른 제영시(특히 누정 제영시)와의 차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특성 연구라는 본 논문의 성격상 동일성보다는 차별성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가 제영시의 일반적 성격과는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며, 한국 사찰 제영시와는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데 주목하여 논의함으로써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 一般的 特性

### 2-1. 題詠 空間에 나타난 景의 不在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찰 제영시에 대한 정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사찰 제영시는 논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먼저 1) 김갑기, 이종묵은 사찰제영시,<sup>5)</sup> 2) 김진욱, 김석태는 사찰 제영시,<sup>6)</sup> 3) 박수천은 사찰 제영 한시<sup>7)</sup>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표현은 사찰제영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대상은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1)과 2)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논자 역시 있다.

3) 金晉郁,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 인쇄나라 다컴, 2009.

4) 金晉郁,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5) 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 2007.

이종묵,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6) 拙稿,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투영된 불교 공간 인식 연구」, 『인문과학논총 31권』, 2012.

김석태, 「호남의 사찰 제영시」, 『호남문화연구 41집』, 2007.

7) 박수천, 「智異山의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집』, 2000.

어떠한 표현이 정당한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만큼 사찰 제영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사찰 제영시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 사찰 제영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찰 제영시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갑기는 “사찰 제영시를 제영시의 포괄적 동일 개념으로 인식하되, ‘사찰 및 불교리’, 혹은 ‘불사 관련의 시’라는 하위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sup>8)</sup>라고 언급하였고, 강석근은 “사찰제영시에는 말 그대로 제목에 사찰 이름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시제는 통상 ‘題00寺’ 혹은 ‘訪00寺’와 같은 형태를 띤다.”<sup>9)</sup>라고 하였다. 임종욱은 “그것은 바로 문학 창작의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사찰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중략 … 이렇게 많은 사찰제영시들이 문집에 남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사찰을 찾았는가를 증명한다.”<sup>10)</sup>라는 표현으로 사찰제영시를 작가가 사찰을 직접 찾고 그 속에서 느낀 흥취를 표현한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제에 사찰명이 드러나 있는 경우.
- 2) 작품의 주제가 사찰 및 불교리, 혹은 불사 관련의 시.
- 3) 작품 창작 공간 내지 작품의 배경이 사찰인 경우.
- 4) 사찰 공간에서 느낀 흥취를 시화한 경우.

그러므로 사찰 제영시에 대한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 넷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 넷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보아도 현재까지 학계의 관행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찰 제영시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8) 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 2007, 60쪽.

9) 강석근, 「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77쪽. 이종묵 역시 사찰제영시를 사찰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시로 보았다.(이종묵,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2쪽.)

10) 임종욱, 「사찰제영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5집』, 2000, 133쪽에서 134쪽.

한다.

제영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작품 속에 제영 공간의 景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sup>11)</sup> 사찰 제영시 역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영시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이종묵은 사찰제영시의 전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율시로 된 사찰제영시는 수련에서 과제하고 함련과 경련에 정경을 배분하며 미련에서 주제를 진술한다. 수련에서 과제하는 방법은 주제를 말하는 유형과 절의 위치나 모습을 형용하는 유형이 일반적이다. 함련과 경련은 먼저 정을 말하고 이어 경을 말한 유형, 경을 먼저 말하고 정을 말하는 유형, 경만을 말하는 유형 등이 있다. 이 때 정경이 혼용되고, 구법의 변화가 있으며, 묘사하는 대상이 서로 긴밀한 호응관계를 유지하여야 높은 미감을 발휘할 수 있다. 수련이 주제를 말할 때 미련이 이와 암합하여야 하며, 수련의 주제를 발전 변화시키는 것도 사찰제영시의 한 전형이다.<sup>12)</sup>

이종묵의 지적처럼 율시로 된 상당수의 사찰 제영시가 이러한 전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형에서 벗어난 작품들 역시 작품 내용에서 경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절구로 된 사찰 제영시 역시 작품에 경이 드러난다. 사찰 제영시에서는 고시가 극히 드물게 보인다. 그러나 사찰 제영시가 고시의 형식을 수용할 때는 작품에 두드러지게 경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찰 제영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작품에 경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찰 제영시의 제영적 특성상 별반 새로울 것도 특이할 것도 없다. 다만 충실한 논의를 위하여 박인량의 <龜山寺><sup>13)</sup>라는 사찰

11)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35집』, 2006, 247쪽. 무엇보다 제영시의 시학적 특징은 그 시적 흥취가 그 지역의 경치와 맞아서 眞景을 그대로 묘사함은 물론 역사, 포괄적으로 ‘문화적 궤적’이 관류해 있으므로, 그 수용미학은 배가할 것이다.

12) 이종묵,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56쪽에서 57쪽.

13) 민병수는 “위에서 보인 崔致遠의 <贈金川寺主人>, <贈智光上人>, <登潤州慈和寺

제영시를 통하여 작품 속에서 경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巉巖怪石疊成山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浪底 磬聲搖月落雲間 門前客棹洪波急 竹下僧碁白日閑 一奉皇華堪惜別 更留詩句約重攀	험한 바위 괴이한 돌이 쌓여 높은 산을 이루고 그 위에 절이 있고 물이 사방으로 돌렸네 탑 그림자 강에 거꾸러져 물결 아래 일렁이고 풍경 소리 달빛에 흔들려 구름 사이로 떨어지네 문 앞 나그네의 노는 큰 파도에 급한데 대나무 아래 스님의 바둑은 한낮에 한가롭네 대국에 사신 임무를 받든지라 이별을 아쉬워하며 시 한 수 남기고는 다시 오기를 기약하네 <使宋過泗州龜山寺> <sup>14)</sup>
--	--

박인량의 <龜山寺>는 위에서 언급한 사찰 제영시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수련에서 구산사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물가 벼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구산사의 모습이다. 중국 안휘성에 있다는 구산사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듯이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을 읽는 讀者는 ‘얼마나 벼랑 끝에 있으면 탑 그림자가 강에 비추고, 또 얼마나 높으면 풍경 소리가 구름 사이로 떨어질까.’ 하며, 구산사를 상상하게끔 한다. 이 작품의 詩眼은 경련이다. 情景의 혼용이 극치를 이룬 싯구이다. 그러나 수련에서 묘사한 구산사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경련의 미감은 크게 반감될 것이다. 이만큼 사찰 제영시에서 사찰에 대한 묘사는 작품 전체에 끼치는 영

上房>, 朴仁範의 <涇州龍朔寺>, 朴寅亮의 <使宋過泗州龜山寺> 등이 모두 사찰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들은 또한 이 시대의 대표작이 되고 있다.”(『한국 한시와 사찰』, 『한국한시연구 4집』, 1996, 7쪽.)라며 사찰 제영시의 대표작으로 위의 작품들을 꼽았다.

강석근 역시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사찰제영시로 유명한 작품에는 나말여초의 이른바 三詩로 불리는 崔致遠의 <登潤州慈和寺上房>, 朴寅亮의 <使宋過泗州龜山寺>, 朴仁範의 <涇州龍朔寺>이 그것이다. 이 시들은 명작일뿐 아니라 사찰제영시로도 절창으로 알려져 왔다.”(『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76쪽.)라고 하였다. 많은 선학들이 朴寅亮의 <使宋過泗州龜山寺>를 사찰 제영시 중 수작으로 꼽았기에 이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4) 朴寅亮, <使宋過泗州龜山寺>, 『동문선 권12』.

향이 지대하다. 이 작품의 수련에 대하여 이종목은 사찰 제영시의 전범을 보여주었다고 평하였다.<sup>15)</sup>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이러한 전형을 일탈한 작품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중 수작 가운데의 하나가 이달의 <佛日庵贈因雲釋>이다.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寺在白雲中	절은 흰구름 가운데 있는데
白雲僧不掃	흰구름을 중은 쓸지 않네
客來門始開	손이 오자 비로소 문이 열리는데
萬壑松花老	온 골짜기에 송화가루 날리네

<佛日庵贈因雲釋><sup>16)</sup>

三唐詩人으로 추앙받았던 李達의 작품이다. 특히 이달의 <佛日庵贈因雲釋>은 인구에 대단히 회자되었으며, 많은 선학들이 언급하였다. “이달의 <佛日庵贈因雲釋>은 불일암 못지않게 유명한 시이다. 시를 읽으면 산사가 구름에 잠겨 있는 풍경이다. 송화가루가 익어 바람에 눈처럼 휘날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불일암의 정경이 잘 묘사된 수작이다.”<sup>17)</sup>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이다.

15) 이종목,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41쪽에서 42쪽. 사찰이나 누정을 노래한 율시는 1연에서 절이나 누정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제목을 풀이할 때가 많다. 이때 절과 누정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 박인범이 <경주 용삭사의 전각에서 운서상인에게 겸하여 보내다>에서 날 듯한 선각이 푸른 하늘에 솟아 있어, 월궁의 피리 소리가 역력히 들릴 듯이라 과장한 것도 절이 그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표현이다. … 중략 … 시에서는 절이나 누각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야 묘미가 있다. 박인량은 기암괴석이 포개진 석산 위에 절이 있다 했다. 또 절이 산 정상 절벽에 있어 사방에 강물이 두르고 있다며 과장한다. 이렇게 1연에서 허공에 매달린 듯한 구산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16) 李達, 『蓀谷集』.

17) 拙稿,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194쪽. 또한 김갑기의 『시로 읽는 사찰 문화』(제이앤씨, 2009, 8쪽.)는 “사찰을 제시연구한 수많은 제영시 중 사찰, 작자, 문예미 등을 배려해 가려 뽑은 역주서이다.”라는 편역자의 말대로 한국 사찰 제영시의 대표작들이다. 1寺 1題 원칙인 여기에서 불일암의 대표작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였다.

불일암이 흰구름 속에 있다는 표현은 불일암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sup>18)</sup> 또한 불일암의 경을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굳이 불일암이 아니더라도 적막한 산사라면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미감은 차이가 없다. 이 작품의 우수함은 절제와 탈속의 심상이 작품의 미적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9)</sup> 다음은 河達洪의 <碧松菴>이라는 작품이다.

頭流諸淨界	두류산 수많은 정도 중에서
淸絶此無雙	이곳의 청절이 짝할 곳 없구나
壁留重降墨	거듭 검게 칠한 벽은 그대로나
壇老古栽松	고송으로 지은 단은 허물어졌네
有僧來掃榻	중은 탑을 쓸러 와서
無事坐聞鍾	일 없이 앉아 종소리만 듣고 있네
最是看山好	이곳이 산을 보기에 가장 좋고
蒼嵐雨後濃	푸른 안개는 비 온 뒤에 더욱 짙구나

<碧松菴><sup>20)</sup>

이 작품의 창작 공간인 벽송사는 경관이 수려하고, 그 곳에서 있으면 세상과 유리된 선계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河達洪은 <碧松菴>을 벽송사에서 창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벽송사의 선계와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로움과

18) 불일암은 해발고도 650여 미터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 체감 높이는 이 보다 훨씬 낮게 느껴진다. 불일암을 직접 방문하면 산 중 사찰로써 고립무원의 느낌은 강하지만 높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사실 불일암이 흰구름 속에 묻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적 과장이다.

19) 拙稿,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투영된 불교 공간 인식 연구」, 『인문과학논총 31 권』, 2012, 50~51쪽. 이 작품은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 화자인 이달은 전지적 시점을 갖춘 채 불일암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심상적 거리는 불일암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轉句의 ‘客’은 화자인 이달이다. 그럼에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화자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절제와 탈속의 심상이 미적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20) 河達洪, 『月村集』.

벽송사에서 누리는 청절함이 미감을 주는 작품이다.<sup>21)</sup>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역시 제영시가 갖는 특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영 공간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朴寅亮의 <使宋過泗州龜山寺>를 읽으면 구산사의 모습이, 朴仁範의 <涇州龍朔寺>를 읽으면 용삭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에 비하여,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를 읽으면 조용한 산사의 모습만 그려진다는 것이 차이이다. 또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제영 공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작품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영 공간이 작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다.<sup>22)</sup>

또한 이러한 이유가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공간<sup>23)</sup>이 그 안에 위치한 사찰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흡입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제시하나 논의의 폭과 지면의 한계 상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2-2. 連作과 次韻의 問題

제영시의 사전적 의미는 ‘제목을 붙여 시를 읊음, 또는 그 시.’<sup>24)</sup>이다.

21) 拙稿,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240쪽에서 241쪽. 河達洪의 <碧松菴>이란 작품 역시 ‘頭流諸淨界 清絕此無雙’이라는 표현으로 두류산에서 가장 맑은 기운이 감싸 도는 벽송사의 선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벽송사의 평화로운 정경을 잘 묘사한 이 작품은 특히 ‘最是看山好 蒼嵐雨後濃’이라는 표현으로 비운 뒤 푸른 아지랑이가 펼쳐져 있는 지리산이 감싸고 있는 벽송사의 평화로움을 잘 묘사하고 있다.

22) 정확한 통계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위해선 한국 사찰 제영시 전체 작품 수, 그 속에서 제영 공간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 수,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전체 작품 수, 그 속에서 제영 공간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 수 등의 파악 등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너무 지난하다. 다만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를 묶은 拙稿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와 사찰 제영 시집이라 할 수 있는 김갑기 『시로 읽는 사찰문화』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지리산의 거대함은 물리적 공간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공간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체 대상에 크게 매료된 상황에서 특정 대상의 아름다움이 돌출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상식에 기초한 추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대상을 노래한 詩歌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영시는 누정 제영시가 가장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제영의 대상이 누정일 경우 누정의 특성상 한 수의 작품으로 누정 공간의 아름다움을 모두 노래하는 것이 어렵기에 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정 제영시의 대표격인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 등을 비롯하여 <00팔경>, <00십경> 등이다. 그리고 詩題에 ‘00영’, ‘00경’ 등으로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연작으로 된 작품을 찾는 것은 누정 제영시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찰 제영시에서 연작시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sup>25)</sup> 사찰 역시 누정과 마찬가지로 승경에 자리한 곳이 많으며, 규모 역시 누정에 비하여 훨씬 커다람에도 불구하고 연작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므로 연작시가 없다는 것을 사찰 제영시 특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나아가 그 이유<sup>26)</sup>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서도 연작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1체에 2수, 3수의 작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작시로 보기에 미흡하다. 그러므로 연작시가 없다는 것이 사찰 제영시의 특성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제영시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하여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 중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24) Daum 국어사전. 정확히 제영시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영이 제영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제영의 어휘 풀이로 대신한다. 또한 누정시, 누정제영시, 사찰제영시 등 역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사전뿐 아니라 백과사전, 문화사전 역시 동일하다.

25) 김갑기의 『시로 읽는 사찰 문화』(제이앤씨, 2009, 8쪽.)는 “사찰을 제시연구한 수 많은 제영시 중 사찰, 작자, 문예미 등을 배려해 가려 뽑은 역주서이다.”라는 편역자의 말대로 한국 사찰 제영시의 대표작들이다. 여기에는 총 365체 380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연작시로 볼 작품은 1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이 사찰 제영시에는 연작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휴 선사의 범맥을 이은 無用 秀演은 <新德精舍十詠>을, 조선 후기 대선사였던 草衣 意恂은 <佛國寺懷古九首>를 남겼다.

26)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본 논의의 핵심에 비껴서 있으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지리산권 사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제영된 사찰은 쌍계사이다. 쌍계사가 지리산권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한 많은 시인묵객들이 지리산을 찾은 이유<sup>27)</sup>가 청학동에 대한 매력과 천왕봉 등정에 대한 갈망<sup>28)</sup>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쌍계사를 찾았을 때, 쌍계사 곳곳에 남아 있는 고운의 자취에 많은 유자들이 감흥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쌍계사 입구 돌기둥 위에 쓰여 있는 ‘雙磎石門’이라는 네 글자는 고운이 직접 쓴 글씨라 하니, 유자라면 당연히 크게 감흥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운의 ‘雙磎石門’이 제재가 된 작품은 상당수가 전해오고 있다.

쌍계사를 찾은 유자들은 고운의 ‘雙磎石門’을 보고 많은 시를 지었으나, 그 당시의 관례와 달리 고운의 시에 차운한 시는 보이지 않는다. 고운은 쌍계사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인하여 사찰 제영시를 2수나 남기고 있다. 먼저 고운의 <雙磎寺寄顥源上人>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終日低頭弄筆端  
人人杜口話心難  
遠亂塵世雖堪熹  
爭奈風情未肯闌  
影鬪晴霞紅葉徑  
聲連夜雨白雲湍  
吟魂對景無羈絆  
四海深機憤道安

종일토록 머리를 숙이고 붓끝을 희롱하니  
사람마다 입 다물어 마음속 말하기가 어렵구나  
속세를 멀리 떠나는 건 비록 즐겁지만  
풍정이 없어지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맑은 노을, 단풍길 그림자가 다투고  
비 오는 밤, 흰 구름 여울에 소리가 이어지네  
읊조리는 마음이 경치에 얽매임이 없으니  
너른 바다의 깊은 기틀을 변민하노라.  
<雙磎寺寄顥源上人><sup>29)</sup>

27)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 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한문학보 20집』, 2009, 40쪽에서 43쪽 참조. 최석기는 조선시대 사인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게 된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공자의 ‘登泰山小天下’의 높은 정신적 세계를 지향하고자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학동, 삼신동 등 선계에서 노닐며 탈속적 정취를 즐기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28) 과거 지리산 청학동의 경우, 쌍계사, 불일암, 불일폭포 부근인 화개동과 신흥사가 있었던 삼신동을 비정하였으며, 이곳은 또한 과거에 천왕봉 등정의 주요 경로였다.

고운의 <雙磎寺寄顥源上人>은 그의 대표작인 <題伽倻山讀書堂><sup>30)</sup>과 느껴지는 미감이 흡사하다. 타자(세상)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심회가 곡진하게 드러나 있다. <題伽倻山讀書堂>에서는 세상의 시비가 싫어 ‘盡籠山’ 하였다면, <雙磎寺寄顥源上人>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遠亂塵世’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題伽倻山讀書堂>에서는 ‘狂噴疊石吼重巒’ 하였고, <雙磎寺寄顥源上人>에서는 ‘四海深機憤道安’ 하는 것이다. 화자의 동일한 번뇌가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지만, 동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雙磎寺> 라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明月雙溪水	밝은 달빛은 쌍계를 비추고
淸風八詠樓	맑은 바람은 팔영루로 부네
昔年爲客處	옛날 나그네 머물던 이곳에서
今日送君遊	오늘 그대와 노닐며 보내노라

<雙磎寺><sup>31)</sup>

고운의 <雙磎寺> 역시 오언절구의 맛을 잘 살린 수작이다. 밝은 달빛과 맑은 바람, 쌍계사를 대표하는 쌍계와 팔영루가 호응을 하며 달밤의 경치가 잘 드러나 있다. 이어서 전구와 결구에서는 옛날과 오늘, 爲客과 送君이 대를 이루며 화자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고운의 <雙磎寺>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면서 어느 달밤 쌍계사의 풍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운은 쌍계사에 이러한 수작을 남겼지만, 이 작품들에 대한 차운시는 전해지지 않는다.

고운이 지리산의 대표적 시인 중 하나라면, 남명은 지리산의 도학자라

29) 崔致遠, 『孤雲集』.

30) 崔致遠, 『孤雲集』. <題伽倻山讀書堂> 狂噴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31) 崔致遠, 『孤雲集』.

할 수 있다. 남명의 문인들에게 남명은 성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인물이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남명학과 유자들은 수없이 지리산을 찾았고, 지리산 곳곳에 남겨진 남명의 자취를 유람하는 것을 대단히 즐겼다. 지리산의 여러 시적 대상 중 특히 단속사의 정당매나 신흥사가 제재가 되어 남겨진 남명학과의 시는 대단히 많다. 먼저 남명의 작품을 감상하고자 한다. 다음은 남명의 <讀神凝寺>라는 작품이다.

瑤草春山綠滿圍 爲憐溪玉坐來遲 生世不能無世累 水雲還付水雲歸	아름다운 풀로 봄 산에 푸른빛이 가득한데 옥 같은 시냇물 사랑스러워 늦도록 앉아 있노라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 얽매임 없을 수 없기에 물과 구름을 도로 물과 구름에 돌려주노라 <讀神凝寺> <sup>32)</sup>
--	--

남명의 <讀神凝寺>는 시에서 느껴지는 미감이 동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이다. 이 작품은 起句와 承句에서 신흥사<sup>33)</sup>의 春景을 노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春景을 묘사하는 데에는 정적 이미지 보다는 동적 이미지가 훨씬 더 어울린다. 그래서 생동하는 봄의 경치를 묘사하는 데에는 동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명의 <讀神凝寺>는 한 컷의 사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靜的이다. 이러한 靜寂感은 承句의 표현처럼 ‘坐來遲’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後情이라고 할 수 있는 轉句와 結句에서 느껴지는 탈속함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남명과 같은 도학자도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에, ‘아름다운 푸른빛의 봄 산’, ‘옥 같은 시냇물’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이

32) 曹植, 『南冥集』.

33) 神凝寺는 화개동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화개면에 있던 지리산 굴지의 대 사찰로 神興寺라고도 하였다. 남명은 이 곳 신흥사에서 장기간 머물며 수학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신흥사를 제재로 한 작품을 여러 편 남기고 있다. 神興寺는 조선시대에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지리산의 理想郷을 찾아 방문했던 곳으로 신라 말 孤雲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여기에 와서 더러운 소리에 때 묻은 귀를 씻었다는 洗耳窟이 바로 앞 계곡에 있다. 현재는 신흥사로 불린다.

다. 신흥사에서는 세상 밖과 세상 안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마음에 담느냐, 다시 돌려주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남명의 절제된 감정이 자연과 잘 융합하고 있는 수작이다. 남명은 이러한 수작을 남겼고, 그 후 수많은 남명학파들이 신흥사를 찾았지만, 차운시는 남기지 않았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서는 연작시만큼이나 차운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sup>34)</sup>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의 폭과 지면의 한계 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하나, 이러한 사실들이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가 일반적 제영시<sup>35)</sup>와 달리 제영 공간의 경이 작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연작시와 차운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주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밝혀 보았다. 이러한 작업이 보다 높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제영시라 할 수 있는 누정 제영시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나, 누정 제영시는 수많은 연구 성과물 속에서 앞에서 거론한 특성들이 이제는 정론화되었다는 판단에서 일반론과 비교하였다.

### 3. 題詠 空間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사찰 제영시에 사찰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작품에 내재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상식일 것이다. 이러한 팩트가 있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찰 제영시에 나타나는 공간의 이미지에 대하여 천착하여 왔다. 사찰

34)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300여 수 가운데 차운시는 3수에 불과했다.

35) 제영시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을 묘사한다는 것과 연작시와 차운시가 많다는 것일 것이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는 제영시의 이러한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제영시에 대한 논의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아직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의 연구 경향은 시대별 연구나, 그리고 자연미 내지 공간에 대한 연구,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이뤄지고 있다.

세 가지 연구 경향 중 각론적 성격이 가장 강한 제영 공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에 대한 연구 경향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사찰 제영시 연구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먼저 사찰 제영시에 나타난 공간의 이미지에 대하여 논의한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석태는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300여 수의 사찰 제영시를 분석한 후 ‘사찰과 그 주변 자연의 형상화가 1) 탈속한정, 2) 수행오도, 3) 선계지향, 4) 영사회고’<sup>36)</sup>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김갑기는 사찰 제영시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사찰 제영시에 나타난 불교 공간 이미지가 ‘1) 탈속 한정의 문예미, 2) 수도 각성의 도량, 3) 회고 상정의 미’<sup>37)</sup>가 나타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강석근은 “사찰의 이미지는 사찰에 대한 문인들의 개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인시켜준다.”<sup>38)</sup>라며 ‘1) 등림과 격세의 공간, 2) 閑의 공간, 3) 해탈과 오도의 공간’<sup>39)</sup>으로 보았다. 임종욱은 ‘1)심미 공간, 2) 수행공간, 3) 개오공간’<sup>40)</sup>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사찰 제영시에 드러난 공간 이미지는 크게 셋으로 나타난다. 종교 공간, 탈속 공간, 회고의 공간이다. 지리산권 사찰

36) 김석태,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시가연구 23집』, 2009.

37) 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 2007, 김갑기는 이 논문에서 사찰 제영시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배불의 시정’과 ‘불교예술의 진수’는 본 논의의 핵심에 비껴서 있으므로 거론하지 않고자 한다.

38) 강석근, 「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적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76쪽.

39) 강석근, 「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적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77쪽

40) 임종욱, 「사찰제영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5집』, 2000.

제영시 역시 작품에 이러한 공간 이미지가 나타난다.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탈속 공간과 종교 공간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찰 제영시의 일반적 특성과 동일하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드러나는 공간 이미지의 특성은 사찰 공간이 人物 懷古의 장소로, 그리고 유희의 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김석태와 김갑기가 논의한 영사회고의 공간이나, 회고 상정의 미가 드러나는 공간은 망국과 같이 폐사나 오래된 사찰에서 느끼는 역사성, 특정 건축물에 대한 회고 등을 의미한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도 이러한 부류의 작품이 있다. 이와는 달리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회고가 시적 제재가 된 작품이 상당수가 전한다. 또한 사찰이 유희 공간으로 나타나는 작품들 역시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작품군이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 3-1. 人物 懷古의 空間

지리산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하나가 고운 최치원이다. 역사적으로 고운은 지리산권인 함양의 태수를 지냈고, 자주 지리산을 찾았다. 고운은 지리산을 제재로 한 많은 작품을 지었으며,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는 등 고운 관련 전설이 지리산권에는 술하게 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운의 유적지라 할 수 있는 ‘雙磯石門’, ‘洗耳岩’ 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고운을 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산을 찾았던 많은 이들은 고운에 대한 회고시를 남겼으며,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가 되었다. 그 가운데 李暉光의 <神興寺過雨>를 살펴보고자 한다.

洞裏行尋學士臺  
寺門秋水小橋回

신흥동천 안으로 학사대<sup>41)</sup>를 찾아가니  
절간 문 가을 물이 조그만 다리를 둘러 있네

41) 學士臺, 학사대는 가야산 해인사에 있다. 신흥사에는 학사대가 없고,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여기서는 최치원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無端一陣溪頭雨      무단히 시냇가에 한줄기 비 내리니  
應爲詩人洗眼來      응당 시인에게 눈을 씻고 오도록 함이네  
〈神興寺過雨〉<sup>42)</sup>

李睟光은 〈神興寺過雨〉의 起句에서 학사대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神興寺에는 학사대가 없다. 시적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고, 李睟光의 착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떻게 보아도 신흥사가 명승 공간으로 이름을 날린 이유 중의 하나가 고운이 상주하였던 공간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유허지이기에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마음을 씻고 들어서야 하며, 李睟光 역시 결구에서 신흥사에 내리는 비는 자신의 마음을 씻기 위함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이와 같이 고운에 대한 인식이 시적 제재가 되고, 주제가 되어 시화가 된 작품이 많다. 지리산권 사찰을 찾았던 조선 시대 유자들은 그곳을 먼저 찾고, 그곳에 자취를 남기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회상과 흥미를 통하여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계의 작품인 安處順의 〈雙磎寺〉이다.

徐步苔路足自蹄      이끼 낀 길 천천히 걸어 고적에 오르니  
山堂石碑事堪稽      산사의 비석은 옛일을 생각해 하네  
蒼茫千古三韓土      아득히 오랜 옛적 삼한의 선비  
磅磚如今四字題      쌍계석문<sup>43)</sup> 네 글자는 방금 쓴 듯 힘차구나  
萬世文章扶日月      만세문장은 해와 달을 부여잡고  
當時筆法可端倪      당시 필법을 널리 전했네  
爲憐青鶴尋仙府      청학을 사랑해 청학동을 찾았으나  
滿袖松香路欲迷      소매에 솔향기만 가득할 뿐 갈 길은 아득하네  
〈雙磎寺〉<sup>44)</sup>

42) 李睟光, 『芝峰集』.

43) 雙磎石門, 쌍계사 입구 양쪽 바위에 왼쪽에는 雙磎, 오른쪽에는 石門이라고 쓰여 있다. 지금도 부식되지 않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데, 최치원이 지팡이로 쓴 글씨라고 전해진다. 수많은 지리산 유산기와 한시 작품에서 쌍계석문을 언급하고 있다.

44) 安處順, 『己卯錄補遺』 卷上.

安處順의 <雙磎寺>는 全情의 구조로 이루어진 칠언율시이다. 首聯에 간접적으로 景이 드러나나 情에 주관하고 있다. 안처순에게는 쌍계사의 경치보다도 쌍계사의 유적이 큰 의미로 다가와 명승지를 찾은 정서가 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情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칠언율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頷聯과 頸聯에서 최치원의 쌍계석문을 직접 보는 감동을 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지리산권 사찰 제영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詩情이다. 동방 유학의 시조였던 고운을 기린 작품은 유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다음은 동일한 題의 逍遙大師와 金安國의 작품이다.

頭流方丈眞仙界	두류산 방장은 신선이 거처하는 곳
鼓翼淸吟付石門	살아있는 시구를 바위에 새겨 냈네
石門筆迹人間寶	석문의 그 필적 인간세계 보배요
遊戲金壇銷白雲	금단에 노닐다가 흰구름에 숨었네

〈題雙磎寺崔孤雲石門筆迹〉<sup>45)</sup>

聞說雙磎寺	말로만 듣던 쌍계사는
孤雲舊所遊	옛날 고운 선생이 놀던 곳
幾曾馳夢想	몇 번을 꿈에 그렸지만
竟未訪眞區	끝내 청학동은 찾지 못했네
咫尺如千里	지척이 천 리 같고
頭顱颯九秋	두류산 단풍은 깊은 가을인데
煙霞非我分	산수를 즐길김은 내 복이 아니런가
矯首意悠悠	다시 한번 생각하니 마음이 한가하네

〈雙磎寺〉<sup>46)</sup>

逍遙大師는 시제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 쌍계석문을 시적 주 제재로 하여 <題雙磎寺崔孤雲石門筆迹>을 창작하였다. 金安國 역시 옛날 고운 선생이 놀던 쌍계사를 그리는 마음이 시적 제재가 되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45) 逍遙大師 太能, 『逍遙堂集』.

46) 金安國, 『慕齋集』.

이처럼 지리산을 찾는 이들은 최치원의 유적에 대하여 동일한 심상의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고운에 대한 회고시가 가장 많이 전해지지만, 이러한 인물 회고시는 고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권 지식인인 남명 조식에 대한 회고시도 전하고 있다. 다음은 鄭栻의 <題斷俗寺政堂梅>이다.

政梅堂在小池濱	자그마한 연못가에 있는 정당매
相國遺蹤久亦新	상국의 남은 자취 아직도 역력하네
花事不隨人事誤	꽃의 일은 인간사처럼 그릇되지 않아
東風依舊一般春	봄바람에 어김없이 그대로 피어나네

<題斷俗寺政堂梅><sup>47)</sup>

남명은 단속사의 정당매를 사랑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단속사 정당매를 제재로 2수나 시를 지었다.<sup>48)</sup> 鄭栻은 단속사를 찾아 남명이 보았던 그 정당매를 보고 <題斷俗寺政堂梅>라는 시로써 남명을 회고하고 있다. 연못가의 정당매를 보니 남명이 생각나고, 선생은 이미 150여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취는 아직도 역력하다고 말하고 있다. 승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相國은 남명을 가리킨다. 남명은 재상을 하지 못하였지만, 1613년에 영의정이 증직되었다. 그러므로 상국이라 표현한 것이다. 사후 영의정을 증직 받았지만 남명은 살아생전 한 번도 벼슬길에 나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전구에서 세상이 그릇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다음은 鄭載圭의 <七佛庵>이라는 작품이다.

玉寶琴已古	옥보고의 거문고가 이미 옛일이라
空藏流水音	헛되이 흐르는 물소리만 감췄구나
悠悠七王子	멀고 먼 칠 왕자는
淸磬尙傳心	맑은 풍경소리 오히려 마음을 전했구나
白雲還欲冷	흰구름은 도로 차가워지나

47) 鄭栻, 『明庵集』.

48) 曹植, 『南冥集』, <斷俗寺政堂梅>, <贈山人惟政>.

青鶴不復尋      청학은 다시 찾지 못하구나  
 忍使茲遊泯      차마 이 놀음이 없어질까  
 悵然續短吟      슬피 끊어진 소리를 이었네  
 <七佛庵><sup>49)</sup>

이 작품은 칠불사의 창건 유래에 대한 감회와 칠불사에 머물렀던 옥보고에 대한 회상이 시화되었다. 수련에서는 옥보고, 함련에서는 칠왕자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회상이 경련에 와서 시대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작품이다. 칠불사에는 이러한 사찰 제영시가 대단히 많다. 칠불사를 찾은 이들은 항상 칠왕자와 옥보고를 회상하였던 것 같다. 다음 李純仁의 <七佛庵> 역시 동일한 궤의 작품이다.

山人手自掃莓苔      산사람이 스스로 이끼를 쓸었더니  
 小院初開雲上臺      조그만 절이 구름 위 높은 대에 처음 열리네  
 三十六調彈夜半      서른여섯 거문고 곡을 한밤중에 타노라니  
 碧壇明月鶴徘徊      푸른 단 밝은 달에 학들이 배회하네  
 <七佛庵><sup>50)</sup>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회고시가 많다. 굳이 나열하자면 진감국사, 유정, 휴정, 부휴선사 등 불가인과 앞에서 거론하였던 최치원, 조식, 김종직 등의 유자들, 칠왕자, 옥보고 등 전설화 된 인물들로 유형을 가릴 수 있겠다. 이러한 인물들은 지리산 곳곳에 그 자취를 남겼고, 훗날 이곳을 찾는 이는 그 공간에서 그들을 회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인물에 대한 회고시가 많다는 것이 주요한 특성이다.

### 3-2. 遊戲의 空間

49) 鄭載圭, 『老柏軒集』.

50) 李純仁, 『孤潭逸稿』.

유희는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sup>51)</sup>으로, 조선시대 유자들의 대표적 유희는 淸遊로 일컬어지는 山水遊覽이었다. 산수유람 자체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였으니, 산수유람은 그 자체로써 유자들에게 대단한 유희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희의 감흥을 시화한 작품 역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유희를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하면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중 유자들의 작품은 대부분이 유희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유희 공간의 특성이 회석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유희를 협소한 개념인 노동의 상대 개념, 놀이 문화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유희 공간 역시 물놀이 공간, 꽃놀이 단풍놀이 공간, 술자리 등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산권의 사찰 제영시에는 불교 공간이 이처럼 유희 공간, 약간의 향락성이 풍기는 즐거운 공간으로 시화된 작품이 상당수가 있다. 이것 역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묘사된 불교 공간이 놀이 공간으로 시화된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郭鍾錫의 <大源菴洞口>이다.

一山門又一山門	하나의 산문에 또 하나의 산문
老木蒼藤太古痕	늙은 나무 푸른 등나무는 태고의 흔적
石路已占方丈脊	돌길은 방장산 등마루로 나 있고
陰溪猶秘德川根	산 북쪽 시내는 신비로운 덕천강의 근원
躋攀而往終奇境	더위잡고 올라가니 마침내 기이한 절경
轉眄之間忽遠村	잠깐 사이에 문득 마을이 멀어졌네
仙侶飄飄先入洞	동행하던 벗들이 표표히 먼저 골짜기에 들어갔으니臨流
何惜共開樽	물가에 임해 술동이 잡고 얼마나 애석해 할까

<大源菴洞口>

郭鍾錫의 <大源菴洞口>는 특별한 상징이나 은유가 보이지 않는 작가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시화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작품이 평이하다 할 수

51) 네이버 백과사전.

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郭鍾錫은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대원사 계곡에 물놀이를 간 것으로 보인다. 尾聯에 보이듯이 함께 간 친우들은 ‘仙侶飄飄先入洞’ 하였다. 그리고 ‘臨流’ 하여 ‘共開樽’ 하고 있을 것이다. 曠宗석은 ‘何惜’이라는 표현으로 경련에서 제시한 대원암의 기이한 절경을 감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은 선계와 같은 대원사 계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하는 즐거움을 시화하고 있다. 대원사라는 불교 공간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들에게는 ‘깨끗한 물놀이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梅泉의 <赴海鶴華嚴寺之約>이다.

馬首鐘鳴已暮天  
木蘭花老感當年  
碧紗紅袖嘲平仲  
春草鳴禽夢蕙連  
冒雨不辭招我飲  
思山久擬與僧眠  
讀書臺路猶能記  
磚級分明白塔前

말은 방울 울리며 이미 해는 저물었는데  
목란화는 늙어서 그 옛날을 생각해 하네  
푸른 비단 붉은 옷 입은 안평중을 조롱하고  
봄 풀에 우는 새는 해련을 꿈꾸게 하네  
비 무릅쓰고 나를 초대하더니 술 마심을 사양치 않고  
산을 생각하여 늦도록 스님과 함께 자고 싶어라  
독서대 가는 길은 오히려 잘 기억하겠거니와  
벽돌 계단은 분명히 백담 앞에 있더라

蓬蓬流水碎春聲  
環佩琮琤更可聽  
花下問僧眉鬢白  
山中見鳥羽毛青  
興闌酒札頻投縣  
吟苦鞋聲久在庭  
回首五更鐘落處  
靈源都似不曾經

바람 불고 흐르는 물소리 봄밤의 별을 부수고  
옥구슬 땡그랑 소리 다시 가히 들을 수 없네  
꽃 밑에서 중에게 물으니 눈썹과 귀밑털이 하얗고  
산중에서 새를 보니 깃털이 푸르네  
흥에 무르녹아 술 쪽지를 자주 읊내에 보내고  
시 짓기 어려워 신발 소리만이 오래 뜰에 있네  
새벽 종소리 나는 곳으로 머리를 돌리니  
영험스런 기운을 일찍 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네  
<赴海鶴華嚴寺之約><sup>52)</sup>

52) 黃玿, 『梅泉集』.

화엄사는 매천이 거주하였던 월곡에서 한달음 거리이다. 매천을 비롯하여 구례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자들의 다른 작품에서도 화엄사나 천은사에서 술을 마신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화엄사나 천은사는 자그마한 암자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사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는지, 지리산권 사찰의 특성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징이나 비유, 관용적 표현이 아닌 실제 사찰이 술자리 공간이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의 전체적 내용에 친구들과 화엄사에 가서 술을 마시며 시도 짓고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첫 수 함련에 나타나있듯 ‘嘲平仲’하고 ‘夢惠連’ 하기에, 그들은 화엄사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 것이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둘째 수에 드러나 있듯 자꾸 술이 떨어져 읍내로 사라 나가고 영험한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들의 술자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중간 중간에 ‘與僧眠’, ‘白塔前’, ‘鐘落’, ‘靈源’ 등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나 여기에서 화엄사라는 사찰은 단지 술 마시기에 좋은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작품의 주제 역시 화엄사에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이처럼 사찰을 술자리 공간으로 인식하는 작품이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다.<sup>53)</sup> 조선시대 유자들에게 사찰이라는 장소는 유산 중 머물러 자고 가는 공간이었으며, 차와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다음은 蘇蘭의 <鷺谷寺晚秋>이다.

勞生分外作閑遊      고생스러운 인생이 분수 밖 한가로운 놀이를 하니

53) 金晉郁,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에 소개된 작품 중 몇몇을 열거하면 <留華嚴寺小飲>, <赴海鶴華嚴寺之約>, <同朴明府游泉隱寺>, <泉隱寺小會>, <奉贈君會舊契尹景禧 三首>, <雙磎園> 등이 있다.

54) 위 시의 작가인 매천은 유자였음에도 배불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다른 작품 <暮投華嚴寺>, <鷺谷寺>, <入泉隱寺> 등의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로 보아서 그렇게 추정한다.

古寺楓林已晚秋      옛 절의 단풍 숲은 이미 늦은 가을이네  
 盡日沙門無客到      하루 종일 사문엔 나그네가 이르지 않으니  
 雅懷時復向清流      아회를 회복하고 청류를 구했네  
 <鷲谷寺晚秋><sup>55)</sup>

연곡사는 우리나라 3대 단풍놀이 장소의 하나인 피아골에 위치하고 있다. 17세기 중엽을 살았던 蘇蘭은 남원인이기에 연곡사와는 지척의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연곡사를 찾고, 피아골 단풍을 자주 구경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이 작품은 소란의 ‘분수 밖 한가로운 놀이’가 시적 체재가 되어 창작되어진 작품이다. 어느 가을 소란은 연곡사로 단풍놀이를 갔으며, 연곡사 단풍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세상과의 갈등, 번민을 해소하고 있다. 연곡사는 종교적 공간에서 누릴 수 없었던 ‘雅懷’의 회복이 ‘楓林’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古寺’에는 하루 종일 ‘無客到’ 하는 것이다. 작품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결구의 ‘雅懷時復向清流’로 집중되지만, 연곡사의 단풍 숲에서 누리는 ‘단풍놀이’의 즐거움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을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산수유람의 즐거움, 탈속의 정서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단풍놀이, 꽃구경의 즐거움을 시화한 작품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sup>56)</sup>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서 제영 공간은 단순한 유희 공간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사찰은 정신적 일탈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물놀이, 단풍 놀이, 술 자리 등 놀이 공간’의 의미로써 人世와 특별한 차별이 없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는 이러한 작품이 상당수가 전한다는 것이 특성이다.

55) 蘇蘭, <鷲谷寺晚秋>. 金晋郁,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54쪽 再引用.

56)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서 이러한 작품군은 탈속의 정서, 閑의 정서, 격세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군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 4. 結論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아직 한국 사찰 제영시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사찰 제영시가 가지는 특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감행한 이유는 특정 장르의 특성이라는 것이 한사람의 작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과 이러한 작업이 비록 오류를 가지더라도, 결국 한국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사찰 제영시의 기저가 되는 불교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지리산권 불교문화가 한국 불교문화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기에, 지리산권은 불교문화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이면서, 중앙적 성격을 나아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는 일반적으로 제영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景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 제영시의 일반적 형식인 연작시와 차운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제영 공간이 인물에 대한 회고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유희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은 제영시의 일반적 성격과 무척 상이하고 사찰 제영시의 특성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논문의 성격상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를 상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추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석근, 「사찰제영시의 공간성과 문학성」, 『불교어문논집 9집』, 2005, 77쪽.
- 강정화, 「지리산 유산시에 나타난 명승의 문학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367쪽.
- 金晋郁,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출판사, 2005, 222쪽.
- 金晋郁,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2011, 106쪽.
- 金晋郁, 『智異山圈 寺刹 題詠詩』, 인쇄나라 다컴, 2009.
- 金晋郁,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에 투영된 불교 공간 인식 연구」, 『인문 과학논총 31권』, 2012, 37~64쪽.
-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35집』, 2006, 247쪽.
- 김갑기, 「조선후기 사찰제영시고」, 『한국어문학연구48집』, 2007, 56쪽.
- 김갑기, 『시로 읽는 사찰 문화』, 제이앤씨, 2009, 8쪽.
- 김석태,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시가연구 23집』, 2009.
- 김석태, 「호남의 사찰 제영시」, 『호남문화연구 41집』, 2007.
- 김혜숙, 「지리산의 한시적 반향」, 『한국한시연구 7집』, 2000.
- 민병수, 「한국 한시와 사찰」, 『한국한시연구 4집』, 1996, 7쪽.
- 박수천, 「智異山의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집』, 2000.
- 안 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朝鮮大學校 博士論文, 2000, 155쪽.
- 이 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290쪽.
- 이종목,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2쪽.
- 이종목,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41~42쪽.
- 임종욱, 「사찰제영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5집』, 2000, 133~134쪽.

장병철외, 『지리산과 명산문화』, 디자인흐름, 2010.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 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한문학  
보 20집』, 2009, 40~43쪽 참조.

홍영기외, 『지리산과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브레인, 2010.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 A Study on jirisan-gwon buddhist temples jeyoung-si

Kim, Jin-wook

This paper jirisangwon Confucian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Buddhist temples projected jeyoungsi awareness of space was intended to discuss. To this end, the middle jirisangwon Buddhist temples jeyoungsi revealed an awareness of space in early works, some were aware gareul appear. As a result, the Joseon Dynasty temple of the rights Confucian intellectuals Jiri significantly the ideal space and recognize that there were divided into temporal space was unknown.

If the former, according to Jiri mountain clean-term commitment and temperance speaker differentiation, and commitment, the respect for Buddhism, or 'in adoration, and fairy tales as "appears, if excision of Buddhism, while maintaining a constant distance Out in the world mood.

As such, scenic area inspections jirisangwon jeyoungsi sanctions are perceived as being poetic, been the subject of a lot of work became Sihwa. Joseon temples sought jirisangwon Confucian intellectuals looking for their first place where he had to leave traces in the historical figures on the occasion of reflection through recall and adored as a samgoja is who. Buddhist temples projected jirisangwon jeyoungsi Confucian intellectuals awareness about the space of three who shared second place with Buddhist and Confucian intellectuals, about the history and character continues to be adored and cultivating was recognized as a

scenic area.

Buddhist temples projected jirisangwon jeyoungsi Confucian intellectuals awareness about the space finally been recognized as an amusement area. Buddhist temples projected jirisangwon jeyoungsi Confucian intellectuals awareness about the space finally been recognized as an amusement area. Soon, the "outside world, the meaning of life 'as a psychological space that is allowed to deviate," Water, leaves play, play areas, such as drinking place "means a confined space as a royalty and has been accepted as a special distinction.

**Key words :** Jirisangwon Buddhist temples jeyoung-si, Confucian intellectuals awareness, jirisangwon, Jiri mountain, scenic area, buddhist spatial